

牧師所感： 韓国の日本宣教師 李在雨牧師

李牧師は1997年3月、韓国 アッセンブリー教団から日本に派遣された牧師である。のみでなく 李牧師は 詩人でもある。最近 心を込めて詠んだ詩をご紹介します。

曠野 李在雨

あゝ わたしは出て行きたい わたしは生かされたい
世の中で最も安全な所は ここしかない 人々はわたしを
この本の中だけに 閉じ込めて置いたのだ
あゝ わたしは息を続けたい
わたしを見るのが嫌なら わたしをあの深い山に置いておくのだ
然らば 鳥達が私を歌うはずだ
わたしを見るのが嫌ならば わたしをあの深い海に投げ入れておくれ
ならば 静まり返っていた波が叫ぶだろう
わたしを見るのが嫌ならば あの荒れ果てた曠野に私を投げ入れるのだ
ならば 砂ほこりが あの角の立った石群が 私を歌うだろう
で わたしは 曠野の食卓になったのだ
で わたしは 曠野で叫ぶ者になったのだ

曠野の招待

광야

아 나는 나가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기 밖에는 없다고
사람들은 나를
이 책속에만 가두어 놓았네
아 나는 숨쉬고 싶다
나 보기가 싫거든
나를 저 깊은 산에 놓아둬
그러면 새들이 나를 노래할거야
나 보기가 싫거든
나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줘
그러면 잠자던 파도가 소리칠거야
나 보기가 싫거든
저 거친 광야에 나를 던져줘
그러면 모래바람이
저 모난 돌들이
나를 노래할거야
그래서 나는
광야의 식탁이 되었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되었네



광야의 시 Note
시78편은 다윗왕 때 예배음악 제정에 크게 공헌한 악사 '아삼'의 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하셨고
광야 방석을 쳐 뽕을 강강이 흐르게
하시 미시게 하시며 능히
먹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다."
(시78:17-19)
'광야'의 시 주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깝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광야'고
타는듯한 목마름에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또한 '광야'입니다.

李在雨宣教師profile
1961.1.1 강원도 홍천 출생
1997.3韓國アッセンブリー教団
利川福音教會日本宣教師派遣
원주인선교/교회개혁/제자훈련
사회관미 문서선교
구주구리 기도회집 건축
090-8344-8851
*2024.4.16 (구주구리 장엄예배)를 축하하고
축복하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구주구리 기도회집은 주께서
배부시는 광야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